

연천군 황혼 미팅... 80대에도 로맨스가

최연소자 65세...독거노인 솔로탈출 미팅 얼굴 주름은 늘었지만 이성 앞에서 설레는 마음은 청춘 못지 않았다.

젊은이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미팅이 어르신들 대상으로 열리는 곳이 있다. 사회 복지법인 연꽃마을이 운영하는 경기 연천군노인복지관이다. 3월부터 '인생2막 황혼에서 찾은 로맨스, 두 번째 프로포즈' 기념 어르신 각 15명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프로그램에는 '독거노인 솔로탈출기'라는 부제가 붙었다.

"외롭지, 외롭지 않다는 건 거짓말이야." (이 모 어르신, 80세)

"비나 눈이 칙칙 날릴 때는 쓸쓸하지. 그때마다 나도 남편이 있었으면 오죽 좋을까란 생각이 들어." (박 모 어르신, 82세)

나이만큼 외로움도 늘어난다. 어르신들이 체면불구하고 쏟아낸 말들에 적절함이 배어있다.



포천 허브아일랜드에서 진행된 황혼미팅에 참가하고 포즈를 취하고 있는 어르신들.

홀몸노인 외로움 탈기 위해 힐링캠프, 성인식 교육 포함 황혼 미팅... 참석률 100%
어르신들의 열기 '뜨거워'

연천군은 경기 노인자살률 1위(2012년 통계기준)라는 불명예를 씻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동원해왔다. '두 번째 프로포즈' 역시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덜고자 기획한 프로그램이다. 어르신들이 복지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는 점도 고려됐다.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홍윤숙 연천군노인복지관 재가복지과장은 "배우자가 없어 느끼는 외로움, 소외감으로 노인들에게 우울증상이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며 "같은 세대를 살아온 어르신들이 상호 경

혼이나 성문제는 억압된 측면이 없지 않다. 노인 스스로가 전통적 도덕관을 극복하고 건강한 노년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프로그램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두 번째 프로포즈는 단순 단체미팅이 아니다. 10개월간 노년기의 사랑과 삶에 대해 알아가는 장기 프로젝트다. 매주 한 번씩 총 25회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자아 존중감 회복과 우울증 예방을 도모하는 힐링캠프, 노인영화관람, 웃음치료, 성인식개선 교육, 운동회 등을 함께하며 지속적 유대관계 형성을 꾀한다.

그래도 미팅은 여전히 설레 어르신들을 설레게 하는 미팅은 세 차례. 첫회는 지난 5월 8일 열렸다. 사랑의 작대기는 8커플을 탄생시켰고 나머지 7쌍 역시

차순위로 택한 상대와 짝을 이뤘다. 다음 미팅에서는 새로운 커플들이 만들어진다. 프로그램 물이다. 다양한 사람들과 만남을 넓혀보라는 복지관측의 배려다.

얼른 짝지 좀 바꿔달라는 의견부터 다른 사람 필요없다며 한 상대만을 고수하는 순정과 어르신까지 요구사항도 제각각이다. 복지관측은 수업에 관한 어르신들의 지난 친 열기를 어떻게 식힐지 고민중이다.

프로그램 참석률은 100%. 80%를 넘으면 최우수프로그램이라고 평가하기 마련인데 이 같은 수치는 복지관 개관 이래 최초다. 본격 연애모드에 돌입하면서 교실은 말 그대로 '뜨거워' 졌다. 수업담당자는 짝궁 바라보기에 허접함이 물두한 어르신들을 수업으로 불러들이려고 진땀을 뺐다. 가끔 손 좀 그만 놓으시라고 제재도 한다. 급속도로 상대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어르신들이 오랫동안 외로웠다는 방증이다.

어르신간 남녀인식차이를 줄이는 것도 과제다. 가부장적인 제도에 평생을 살아온 어르신들이 가진 고정된 성역할에 대한 인식차가 여기저기 드러난다. 복지관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이 직접 연극에 참여해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표현하는 드라마치료를 준비중이다. 동료어르신의 심리에 함께 몰입하며 이해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리라는 생각에서다.

오랜만에 양복을 꺼내입고, 한복 옷고름을 단정히 땀다. 서로 맘껏 차려입고 수줍게 인사한지 한달. 어르신들에게는 요즘 들어 복지관 가는 길이 가장 설레는 일이다. 외로움을 털어낸 마음에 두근두근 로맨스 그레이가 피어나고 있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사찰 장애인시설 확충방안 모색

조계종사회복지재단, 3차 미래 포럼 5월 26일 개최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은 '불교계 지역사회 장애인시설 현황 및 확충방안'을 주제로 미래복지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은 5월 26일 오후 3시, 서울 견지동 전법회관 6층 프로그램실에서 열린다.

그간 불자 장애인의 사찰 내 접근과 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토론장이 마련됐다.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조석영 관장이 지역사회를 방문하는 장애인들의 접근과 이용을 향상시키고자 사찰 내 장애인 편의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장애인 편의시설의 사찰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이어 장애인 편의시설의 확충을 위한 제도적 노력과 사찰에 대한 지원 및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방안도 모색된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원경 스님은 "본 포럼을 통해 장애인들이 좀 더 불편 없이 사찰에서의 법회나 기도 등의

신앙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나아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은 장애인들이 삶의 여가를 위해 산중이나 도시에 있는 사찰을 방문 하여 불교를 가까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역시 "지역사찰의 편의시설 설치 확충은 장애인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며 "노인, 임산부, 어린이에서부터 문화재를 관람하는 일반인 및 외국인들까지 이용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일이다. 때문에 이번 포럼은 지역사회사찰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조계종사회복지재단 2014년 제3차 미래복지포럼의 일환으로 개최된다. 참가비는 무료며 신청은 5월 21일 까지 조계종사회복지재단으로 하면 된다. (02)6334-2203

배현진 기자



장애인이 사찰에 마련된 경사로에 의지해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종로노인복지관 분관 무악센터 개관

600명 대상으로 무료 문화교실 열 계획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 분관인 무악센터가 5월 16일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복지관이 자체 소규모 분관을 설치한 것은 이례적인 일. 종로구 내 복지서비스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설립된 무악센터는 교남동, 사직동 거주 어르신들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할 예정이다.

무악센터는 지하 1층, 지상 4층에 357평 규모로 컴퓨터실, 프로그램실, 휴게실, 다목적 강당 등을 갖췄다.

6월부터 개강하는 문화교실에는 인문학, 미술, 영어, 일본어, 프랑스문화, 체조, 무용, 다도 등 600명을 대상으로 21개반이 운영된다. 게다가 수강료는 무료다. 지

역 소규모 복지관이지만 프로그램 운영이나 수용규모는 타 복지관에 견줘도 손색 없을 정도다. 그만큼 잠재수요층 요구가 상당했음을 방증한다.

무악센터 관장인 정관 스님은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무악센터 개관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신노인 문화 중심 1번지를 만들어나가겠다"며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 욕구에 부응해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 즐거운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2012년 12월 착공해 1년 6개월만에 개관하게 된 무악센터는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이 운영하며 운영법인은 조계종사회복



5월 16일 개관된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무악센터의 조감도

지대인이 맡는다.

배현진 기자

어르신 미술 재능 전시회

5월 20일, 독섬 자벌레에서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산하기관이 모여 서예, 사진, 미술 등 어르신 작품 총 40여점을 전시하는 '꿈을 심다'가 개최된다.

전시는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한강 독섬 전망문화콤플렉스 자벌레에서 열린다.

광진노인종합복지관(관장 화평), 용산노인종합복지관(관장 박준기), 중랑노인종합복지관(관장 심정영)이 연합해 어르신들의 기량을 펼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습득한 기술 및 실력을 엿볼 수 있다.

배현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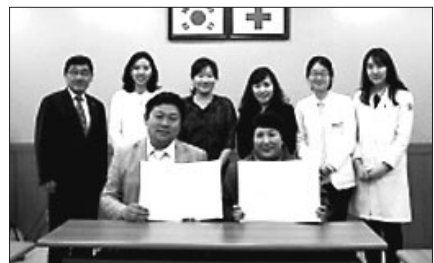
한부모가족 의료지원 대상자 모집

싱글맘 자녀 의료비 100% 지원 내용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한부모가족이 건강한 서울-싱글맘! Smile Again(스마일 어게인)'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최저 생계비 180% 이하의 저소득 싱글맘 자녀(0세~만7세)들에게 의료비(외래비, 입원비, 간병비, 선택적 의료접종비) 및 장애자녀 의료보조기 구입비용의 본인부담금 100%를 전액 지원하는 의료지원사업이다.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지난 4월 30일 서울직접자병원 희망진료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앞으로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싱글맘 자녀를 발굴하고 서울직접자병원에서 대상자 진료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제로투세븐 후원회에 대한 적십자사·서울직접자병원 희망진료센터가 연계해 싱글맘가족 의료지원사업으



서울한부모가족지원센터와 서울직접자병원 희망진료센터의 4월 30일 사업연계 협약식.

로 진행된다. 제로투세븐은 유아복과 유아 스킨케어를 생산하는 회사로 '스마일 어게인' 사업에 3500만원을 후원했다. 사업은 5월 15일부터 사업비 소진시까지 연중 진행되며 매일 말일까지 대상자를 접수받는다. 대상자 모집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02-861-3020). 배현진 기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6기 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쇠송, 상단에불, 각단에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육, 신중작법, 지장창,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 2014년 5월 중
- ◆개강일시 : 2014년 5월 중 매주 (일,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명리학 과정 (임성도 교수님)

- ① 명리학: 초급, 중급, 고급 (각과정 3개월) 2시 반 ~ 4시
- ② 성명학: 초급, 상급 (각 3개월) 1시 ~ 2시 반

▶개강일시: 2014년 5월 26일(매주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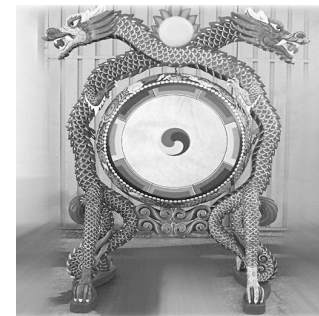
- ※ 본원은 초중과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제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양 지 국 악 사

사찰전통 大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0-5264-3906 www.yjkukak.com